서비스업 10분 TBM · 2편

미화

세제 섞어 쓰지 않기 – 유해가스 중독 예방

좁고 환기가 안 되는 화장실 청소

일시		장소		진행자		참석	명

1 인사·건강확인 1분 | 2 오늘의 위험 2분 | 3 질문 나누기 3분 | 4 안전수칙 3분 | 5 구호·서명 1분

1 인사·건강확인 1분

> “두통이나 기침 있는 분 계신가요? 화장실 청소 후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 분 계세요?”

2 오늘의 위험 2분

- 락스(염소계 표백제)를 산성 세제(변기·물때 세정제 등)나 암모니아계 세제와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.
- 화장실처럼 좁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는 적은 양으로도 위험합니다.
- ‘더 잘 닦이라고’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

3 질문 나누기 3분

> “지금 쓰는 세제 중 락스가 들어간 것, 산성인 것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?”

→ 실제 세제 통을 들고 라벨의 경고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.

현장 의견 메모

4 안전수칙 확인 3분

- [ ] 세제는 절대 섞지 않기 – 한 가지 쓰고 물로 헹군 뒤 다른 것 사용
- [ ] 청소 중 창문 열기·환풍기 켜기
- [ ] 고무장갑·마스크 착용
- [ ] 다른 통에 옮겨 담을 때는 내용물 이름 꼭 쓰기
- [ ] 냄새가 이상하면 즉시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 마시고 보고

5 지적확인 구호·서명 1분

섞지 말고! 환기하고! 좋아!

성명	서명	성명	서명	성명	서명